

皇甫枚《飛烟傳》¹⁾研究*

- 비극요소를 중심으로 -

俞炳甲**

◁ 목 차 ▷

- I. 序言
 - II. 서사 특징
 - III. 비극 요소
 - 1. 과거 경력
 - 2. 사회 제도
 - 3. 전통 예법
 - 4. 인물 성격
 - IV. 結語
-

I. 序言

당대소설은 현실과 밀접한 소재를 작가가 상상력을 동원해 의식적으로 예술적 허구와 결합해 인물 형상을 구현함으로써 중국소설의 질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 때문에 「舊聞을 모아 엮거나 거칠고 개략적인」 육조 필기소설의 영향에서 탈피해 중국소설을 독립적 문학양식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의 흔적은 특히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애정류 작품에서 돋보이는데 〈이혼기〉, 〈유의전〉, 〈곽소옥전〉, 〈이와전〉, 〈앵앵전〉 등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연애나 혼인을 소재로 한 이러한 작품들은 대부분 전통의 가치관이나 사회 제도 및 봉건예법과의 모순과 갈등으로 생산된 당시의 부녀자들의 고충과 희생을

* 본 논문은 청주대학교 2012-2013년도 교내 특별연구비Ⅱ에 의해 작성된 것임.

** 청주대학교 중국학부 중어중문학 전공 교수

1) 《太平廣記》 권291 〈雜傳記〉는 제목을 〈非煙傳〉으로 표기하고 편말의 故事 유전 과정 및 의론 부분을 생략하였으며 출처 역시 기재하지 않았다.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만당시기 皇甫枚의 소설집 《三水小牘》에 수록된 〈飛烟傳〉 역시 이런 류의 작품으로 1,800여자의 짧은 문장 속에 武公業의 애첩인 步飛烟이 이웃집에 사는 젊은 서생과의 사통으로 발생한 비극적 내용을 독특한 필체로 기록하고 있다. 본편과 같은 시기에 출현한 대다수의 소설이 육조 지괴소설의 내용을 답습해 속명론이나 인과론의 사상적 특징을 보이는데 비해, 본편은 단순한 구조 속에 남녀간의 애정문제를 통해 당시의 시대상과 가치관을 반영하고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대소설의 전성기에 속하는 중당시기의 유명 작품과 비견되는 예술 성취를 획득하여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이에 본고는 〈비연전〉에 나타난 주제와 묘사수법 및 비극 요소를 분석해 작품에 내재된 의미와 그 가치를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는 당대소설의 개별 작품에 대한 연구 작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중국문학 사상에서의 소설 지위를 향상시키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본편에 대한 선행연구는 국내는 단지 당대소설 전반에 대한 분석이나 주제 등의 특정 내용에 대해 일부가 인용되고 있을 뿐 작품 전반에 대한 연구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실정이며, 중국에서는 劉筠의 〈談皇甫枚飛烟傳中步飛烟的形象描寫〉, 尹曉曦의 〈步飛烟的悲劇原因闡釋〉, 周承銘의 〈略論飛烟傳的思想價值〉, 李飛의 〈愛的悲劇(讀飛烟傳)〉 등이 있다. 연구 텍스트는 교정이 비교적 완전하다고 평가되는 汪辟疆의 〈唐人傳奇小說〉로 삼았으며 역문은 丁範鎭 교수의 《앵앵전》을 참고하였다.

II. 서사 특징

〈飛烟傳〉은 시간 순서에 따라 한 쌍의 젊은 연인이 이상적인 애정을 추구하다 비극을 맞이하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이다. 그러나 작가는 의도적으로 독특한 서사수법과 구성상의 안배를 통해 긴밀하고 엄정한 구조를 형성하여 작품의 예술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본편의 서두는 고대소설의 일반적 서사형태인 사전체식 기술을 통해 중심인물들의 기호와 성격 및 배경의 간략한 소개로 시작된다. 진실성을 강조하고 신속히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 채택한 이러한 직접 소개(narrative

exposition) 방법은 인물에 대한 최초 인상이 소설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단편소설에서는 독자의 상상력 저해와 흥미 감소를 유발한다. 하지만 본편은 오히려 분위기 조성의 호기심 자극의 기제로 작용하여 진행의 간결성과 구성의 엄밀성을 더하고 있다. 즉, 서두에 당 咸通간 河南府 功曹參軍 武公業의 첩 비연은 절륜한 용모와 날씬한 몸매에 문장과 서화를 좋아하고 음악을 잘하여 공업이 매우 총애한다는 내용과, 이웃에 사는 귀족 자제 趙象은 단아하고 우수하며 재주가 있는 약관으로 압축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무공업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주변관계가 모호해 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시에 두 남녀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발생할 것임을 암시함으로써 작품의 독특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두 번째 단락은 우연히 비연을 본 조상이 문지기 아내를 통해 연모의 정을 알리고 서신을 매개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로 발전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비록 동작 묘사보다 서신을 통한 언어적 표현에 치중하여 생활상이나 시대상을 세밀히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詩歌 특징을 활용해 인물의 감정 변화를 가감 없이 드러내어 독자로 하여금 주변 환경에 대응하는 인물의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유추케 하는 상상의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조상의 연모를 알게 된 비연의 몽롱하고 함축적 의미가 담긴 동작이나 이후 심경을 토로하며 교환한 여러 편의 시는 인물 내면의 심리활동 뿐 아니라 작품에 서술하지 않은 깊은 여운까지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된다. 특히 서너 차례의 편지를 받은 비연이 조상에게 만나고 싶다는 적극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은 고대사회에서 상상하기 힘든 행동이지만, 직접 대면이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지 못하는 비밀스런 감정을 시가라는 운문적 요소를 통해 표출함으로써 매우 자연스럽게 ‘非禮’의 과정으로 연결되는 효과를 얻고 있다. 이러한 서술방법은 시가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던 당시의 시대적 특징과 함께 전개의 묘를 극대화한 수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무공업에 대해서는 자신의 박복함을 토로한 비연의 표현을 근거로 작가가 직접 ‘거칠고 사나워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언어를 제시함으로써 그녀의 내면에 존재한 두 남성의 대비를 통해 갈등 구조를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는 조상의 유혹에 속마음을 쉽게 노출한 비연의 행동을 설명하는 동시에 준수한 외모와 재주를 지닌 조상과의 감정 공유를 통해 부적합한 배우자를 만난 고독감을 보상받고 싶어 하는 그녀의 심리를 적절히 인식시키고 있다 할 것이

다. 이로써 독자는 이들의 관계가 끝내 '非禮'의 방식으로 진전할 가능성을 좀 더 짙게 추측하게 되며 동시에 그 결말이 私奔이나 들통이 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을 점침으로써 흥미와 관심 유발의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추측은 무공업이 숙직하는 날 조상으로 하여금 담장을 넘어오게 하여 밀회가 이루어지면서 확인된다. 이어 작가는 사건의 진전을 위해 밀회를 거듭하던 일 년여의 상황을 제3자가 압축 설명하는 기법을 택해 전환의 기틀을 자연스럽게 마련하고 있다.

이로부터 이들은 열흘 안에 한 번씩은 항상 그 뒤뜰에서 만나 쌓였던 심사를 펴기도 하고 지난날의 회포를 풀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관계는 귀신도 모르는 일이며 하늘이 도운 것을 여겼다. 간혹 경물을 대하면 시를 읊어 정을 나누어 수 없이 오고 간 이들의 정다운 이야기는 너무 많아 다 기록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일년의 세월이 흘렀다.(茲不盈旬, 常得一期於後庭. 展幽微之思, 罄宿昔之心. 以爲鬼神不知, 天人相助. 或景物寓目, 歌咏寄情, 來往便繁, 不能悉載. 如是者周歲.)

세째 단락은 조상과의 밀회가 비연에게 매를 맞은 시녀의 밀고로 사통 사실이 발각되어 죽음을 맞이하고 조상은 趙遠으로 개명하여 江浙지역으로 도망가 숨는 내용이다. 여기서 작가는 현장을 잡기 위한 무공업의 거짓 행동과 두 사람의 밀회 장면 및 조상을 잡다 놓치는 상황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생생한 긴장감을 전해 준다. 또한 화가 난 무공업이 비연의 자백을 강요하였지만 실토하지 않자 기둥에 묶어 채찍질해 끝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은 작품의 절정으로 비극을 통해 주제를 분명히 전달하는 극적 효과를 얻고 있다. 이는 무공업의 야만적 행위를 고발하는 한편 애정에 대한 비연의 단심을 부각시키고 조상의 행동을 대비시켜 당시 사인 자체들의 비겁 행위를 풍자하고 있다. 또한 비연의 죽음을 통해 예교사회의 혼인문제와 신분제도 등의 근원적 문제점을 부각시켜 작품의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할 것이다.

말미에 속하는 넷째 단락은 사실이 아닌 작가의 허구적 서술로 비연이 꿈을 빌려 자신의 행동을 평가한 崔才士와 李生에 대한 반응을 기술한 비현실적인 대목이다. 작가는 자유연애와 행복한 혼인을 추구하다 목숨을 잃은 비연을 동정하고 옹호한 최재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통 예법을 대변해 조롱을 던진 이생에게는 저승에서

대면하자며 원망을 토로하는 대목을 통해 은연중 창작의도를 다시 한 번 드러내고 있다. 즉, 감사와 사후 대면이라는 비현실적 결말을 통해 비연의 행동에 대한 당시의 사회관념과 비연의 처지와 심경을 이해한 내용을 대비함으로써 작가의 태도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비연의 '不貞'행위에 대한 당시의 각기 다른 반응을 표출한 것으로 남녀 애정에 대한 관념의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더욱이 작가는 편말 의론을 통해 비연의 행동에 대해 직접적으로 자신의 평가와 견해를 피력하여 작품의 심각한 의미를 더욱 각인시키고 있다.

삼수인이 말하길: '아!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는 어느 시대든지 다 있지만 절개를 깨끗하고 분명하게 지킨 사람은 드물다. 그러므로 재사가 자신의 재능을 뽐내면 덕이 부족하고 가인이 자기의 미모를 자랑하면 부정하게 된다. 만약 그릇의 물을 들고도 깊은 물가에 임하듯이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단정한 남자와 현숙한 여자가 될 것이다. 비연의 죄는 비록 면할 길이 없지만 그 마음을 잘 살펴보면 또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三水人曰: 噫! 艷冶之貌, 則代有之矣, 詰朗之操, 則人鮮聞乎. 故士矜才則德薄, 女炫色則情私. 若能如執盈, 如臨深, 則皆爲端士淑女矣. 飛烟之罪雖不可道, 察其心, 亦可悲矣.)

작품 말미의 평어는 고대부터 역사서의 기술 양식에서 비롯하여 당대소설에서도 보편 사용된 것으로 그 역할은 독자를 작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있다.²⁾ 〈비연전〉 작가도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한 중법사회의 윤리적 규범 속에 비연의 행위는 마땅히 비난받아야 하지만 최생의 동정론과 이생의 비판론 및 자신의 이해론 등 대표성의 띤 세 가지 관점을 대비시켜 주제와 창작의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특히 작가는 평어에서 「재사가인 중에 단정한 남자와 현숙한 여자가 드물다」며 의식적으로 정절관념이 희박한 당시 세대를 풍자하고, 나아가 '端士淑女'가 되는 방법으로 도덕적 수양과 소질 강화를 제시함으로써 주관적인 주제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주제와 달리 작품을 통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은 오히려 불평등한 삶을 살아가던 일부 부녀자들이 선망하는 애정관과 불합리한 혼인제도의 고발이다. 그리고 행복 추구의 이상을 획득하기 위해 과감히 전통 예교규범에 맞서 투쟁하며 가치관에 반항하는 객관적 주제가 작품 내면에 잠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2) 崔眞娥 《환상, 욕망, 이데올로기》 4부2장(문학과 지성사, 2008), 277-279쪽 참조.

된다.

이상과 같이 〈비연전〉은 자칫 예술성 저하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개략적 서술을 통해 오히려 신속한 진행을 꾀하는 동시에 독특한 배경을 조성하여 주빈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장차 발생할 인물 행동에 대한 추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흥미 유발과 사실성 부각의 효과를 얻고 있다할 것이다. 또한 시가라는 서사 기법을 통해 인물의 심리세계를 세밀하게 표출하여 인물 행동의 필연성을 인식시키고 유추한 사실의 확인에 집중토록 하여 은연중 작품의 긴장감과 구조의 틀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특히 비극을 이용해 사회제도의 폐단과 지배계층의 독선을 고발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비현실적 내용의 침부로 당시 부녀자들의 처지와 여성 정절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재고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작품의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와 같이 〈비연전〉은 동일한 시대상황 아래서 남녀 애정을 묘사한 다른 작품에 비해 문학이 지닌 서사적 예술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강렬한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할 것이다.

Ⅲ. 비극요소

1. 과거 경력

문학은 시대를 반영한다. 소설이 비록 허구성의 문학이지만 작가가 속한 시대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 때문에 비록 소설이 상상력을 결합하였을지라도 그 속에는 당시 사회에 존재하는 가치관이나 윤리도덕 등의 시대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작품의 가치를 제고하고 재미를 더할 뿐 아니라 작가가 추구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어 작품의 이해와 분석의 중요한 단서가 된다.

〈비연전〉 역시 당시의 예법과 제도 등의 모순과 충돌에서 생산된 비극을 다루고 있다. ‘비극이 피할 수 없는 힘이나 자연율(necessity)과 인류의 충돌 양상 속에서 생산되며 그 결과는 항상 후자가 승리하고 후자의 좌절로 이어진다³⁾’고 정의할 때

3) D. D. Raphael, 《The paradox of Tragedy》(Indiana: Indiana University Press,

작품에 나타난 ‘피할 수 없는 힘이나 자연율’을 규명해 보는 것은 작품의 가치와 의미를 증명하는 지름길이라 할 것이다.

비연의 비극은 우선 그녀의 경력에서 시작한다. 중국 고전소설은 대부분 시대배경에 대한 자세한 언급 없이 고사를 진행함으로써 시대가 다른 독자의 눈에는 내면의 갈등이나 표출된 의미가 희석 내지 왜곡되어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퇴색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본 작품도 비연의 처지에 대해 몇 마디 언어로 간략히 처리함으로써 당시 사회에 만연된 혼인과정의 심각한 의미를 소홀히 할 여지가 있다. 즉, 조상이 시로써 애모의 정을 알린 후 비연의 답신에서 자신의 신세에 대해 토로한 말은 비록 간략하지만 이후 비연의 행동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승에서는 박복하여 그런 분의 배필이 될 수 없습니다. …… 저는 팔자가 사나워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청춘에 매파에 속임을 당해 마침내 이 웅졸한 사람에게 시집을 왔습니다.(此生薄福, 不得當之. …… 下妾不幸, 垂髫而孤. 中間爲媒妁所欺, 遂匹合于瑣類.)

여기서 두 가지 사실, 즉 이승에서는 박복하고 팔자가 사나워 조상의 배필이 되지 못한다는 것과, 매파에게 속임을 당해 시집을 오게 되었다는 간단한 말은 비연의 비극을 잉태한 근원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우선 전자는 고대 天命사상에 원류를 둔 定數說의 사상적 배경에 연유하여 심지어 인생의 영화나 오욕 등의 흥망성쇠, 혹은 수명과 길흉화복까지 암중에 그 數가 정해져 있다 생각함으로써⁴⁾ 혼인 역시 하늘이 정하였다는宿命론을 형성하였다. 당시에 만연한 이러한 사상적 풍조는 비연에게 조실부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혼인을 한 것이 모두 팔자가 사나운 탓이며, 박복한 운명이라 조상의 배필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조성하여 현실의 감내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명론에 의한 현실 체념의 이면에는 이미 운명이 정해졌다면 현실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꿈을 현실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작용함으로써 오히려 운명에 대한 도전의 여지가 잠재해 있다 할 것이다. 더욱이 불우한 경력의 비연은 외관상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면에 혼인에 대한 불만과 자유연애에 대한 갈망이 무의식 속에 잠

1960) 25쪽.

4) 俞炳甲〈唐代小說에 나타난 婚姻觀 研究〉; 《인문과학논집》 18집, 청주대학, 1998.2.

재하고 있어 전통 관념과의 충돌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자는 매파에 속임을 당한 원망을 토로한 것으로 당시의 혼인에 대한 불합리한 과정을 폭로하고 자유연애의 욕망을 어느 정도 표출하고 있다. 중국의 고대 혼인은 시경시대부터 이미 반드시 중매인을 통해 이루어 졌는데,⁵⁾ 만약 중매인을 통하지 않으면 수치스럽게 여겼으며 사람들이 믿지 않을 정도였다.⁶⁾ 唐律에서도 ‘혼인에는 반드시 중매인을 써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법률을 어긴 모든 혼인은 비록 중매인이 있어도⁷⁾’라는 규정으로 보아 중매인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중시되었다. 한편 중매인은 중개과정에서 혼인의 성사를 위해 兩家의 내력이나 상황을 설명하고 장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화려한 언사와 과장 또한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을 것이다. 蔣防 〈霍小玉傳〉에는 당시 매파에 대해 비위를 잘 맞추고 겸손하며 언변이 좋을 뿐 아니라 재빠르고 피가 많은 재능을 서술하고, 나아가 상대방의 호기심과 기대감을 최고조로 이끌어 내는 구체적인 교언과 달변을 묘사함으로써 전형적인 매파의 성격과 형상을 그려내고 있다.⁸⁾ 이러한 모습은 당시 중매인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을 것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은 비연이 ‘끝내 속 좁은 사람에게 몸을 의탁’하게 된 원인도 자신들의 재주를 이용해 상대를 속인 중매인에 의해 비롯되었음을 밝힌다. 이러한 불행한 혼인은 봉건사회의 전형적 형태로, 중매인에 속임을 당한 그녀의 과거 경력이 혼인에 대한 불신을 잉태하여 자신의 아니무스(animus)⁹⁾ 일치한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고픈 욕망을 조성함으로써 끝내 전통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비극의 모태가 되고 있다.

이같이 비연의 불운한 과거 경력은 작품의 독특한 환경을 구성하여 사건 전개에 따른 인물성격의 변화 과정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비극의 단초를

5) 《詩經·南山》: 「取妻如何? 匪媒不得。」《禮記·曲禮》: 「男女非有行媒, 不相知名. 非受幣, 不交不親. 故日月以告君, 齊戒以告鬼神。」《周禮·地官》(媒氏之職): 「媒氏掌萬民之判。(鄭注: 判, 半也. 得耦爲合, 主合其半, 成夫婦也.)」

6) 《管子》: 「婦人之求夫家也, 必用媒而後家事成. 求夫家而不用媒, 則醜恥而人不信也。」

7) 長孫無忌《唐律疏議·戶婚》卷14: 「爲婚之法, 必有行媒。」「諸違律爲婚, 雖有媒娉。」

8) 「長安有媒鮑十一娘者, 故薛駙馬家青衣也, 折券從良, 十餘年矣. 性便辟, 巧言語, 豪家戚里, 無不經過, 追風挾策, 推爲渠帥. ……鮑笑曰: “蘇姑子作好夢也未? 有一仙人謫在下界, 不邀財貨, 但慕風流. 如此色目, 共十一郎相當矣. ……資質穠豔, 一生未見, 高情逸態, 事事過人, 音樂詩書, 無不通解。」

9) 崔眞娥 《환상, 욕망, 이데올로기》 3부1장(문학과 지성사, 2008), 199쪽 참조.

제공하고 있다할 것이다.

2. 신분제도

비연전 비극의 두 번째 요인은 넘을 수 없었던 당시의 사회제도와 대립에서 비롯된다. 이는 당시 자신이 속한 일정한 '版籍'을 벗어나면 법적 제재를 받는 계층 간의 엄격한 구별이¹⁰⁾ 첩의 신분인 비연에 대해 이미 안배되어 있는 비극이라 할 수 있다.

고대 중국의 婢妾제도는 후사를 낳힌다는 구실로 한대에 성립되어 천자에서 사인까지 신분에 따라 첩을 둘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었으나,¹¹⁾ 당대에는 지위나 능력에 따라 구애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¹²⁾ 첩이 되는 경로는 대부분 매매나 私奔을 통해 이루어 졌는데, 매매의 경우 기녀들이 기방을 벗어나기 위해 흔히 손님에게 일정한 금액을 贖身토록하여 양민이 되는 방법이며,¹³⁾ 私奔은 《太平廣記》 130권의 〈嚴武〉처럼 유혹을 당하거나 몰래 사분해 첩이 되는 경우였다.

비연의 경우 그녀의 출신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그러나 어려서 고아가 되었으나 진나라 노래와 악기를 잘 다루고 문장과 서화를 좋아하는 등¹⁴⁾ 문화적 소양과 기예가 있는 점에 비추어 전형적인 기녀의 조건을 고루 갖춘 인물로 여겨진다. 이것은 당대 기녀가 손님 접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어려서부터 문학과 음악 등의 전문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실을 기록한 孫棨 《北里志》에 근거한다.¹⁵⁾ 만약

10) 張九齡等《唐六典》卷190:「凡軍, 民, 驛, 竈, 醫人, 工, 樂, 諸色人戶, 並以籍爲定, 若詐冒脫者, 避重就輕者杖八十, 其官司妄准脫免及變亂版籍者, 罪同。」

11) 熊鈍生 主編《辭海》:「天子取九女, 諸侯七, 大夫一妻二妾, 士一妻一妾, 庶人匹夫匹婦, 不得有妾。」(臺北, 中華書局, 1980). 1308쪽.

12) 歐陽脩, 宋祁《新唐書·高祖諸子》:「(元吉)居邊久, 益驕侈. 常令奴客, 諸妾數百人披甲習戰, 相擊刺, 死傷甚重。」沈既濟《枕中記》:「後庭聲色, 皆第一綺麗. …… 佳人名馬, 不可勝數。」

13) 孫棨《北里志·王團》: 名妓 宜之가 '자신이 다행히 아직 妓籍에 들지 않았으니 만약 생각이 있으면 一二白 金의 돈만 쓰면 그대에게 시집을 갈 수 있다(某幸未列教坊籍, 君子尙有意, 一二百之費爾.)'는 내용과 같은 책에 郭鍛이 기생 楚兒를 첩으로 삼은 일, 《全唐詩》 802권 〈張封建의 첩 關盼盼 시〉 등.

14) 「善秦聲, 好文筆, 尤工擊毬, 其韻與絲竹合。」

15) 孫棨《北里志·序》:「諸妓皆居平康里, 舉子·新及第進士·三司幕府但未通朝籍未值

비연이 양가 출신이라면 법적인 제한으로 다른 사람의 첩이 될 수 없었기에 비연의 신세를 논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녀를 家妓라고 단정하고 있다.¹⁶⁾ 더욱이 당시 천민에 속한 기녀를 속신하여 첩으로 삼았던 계층이 대부분 상인이나 무인출신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비연 역시 기녀에서 무공업의 첩이 되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그러나 이들 첩의 지위는 매우 낮아 부인이 사망하더라도 정실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¹⁷⁾ 주인 재산의 일부로 여겨 許堯佐의 〈柳氏傳〉 내용과 같이 예물처럼 증여하거나, 色이 쇠하면 말이나 山茶 등과 교환하고,¹⁸⁾ 처의 질투로 노비의 짝이 되는 일도 발생하였다.¹⁹⁾ 이 때문에 첩은 자신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으며 어떠한 자주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처지였다. 하지만 기녀에서 첩이된 이들은 어느 정도의 교양과 지식을 구비하고 있었기에 신분상의 불이익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과 갈등은 매우 컸을 것이며 평범한 생활에 대한 동경은 더욱 간절하였을 것이다. 비연 역시 비록 무공업에 대해 좋은 짝이 아니며 옹졸한 사람이라고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그 불만을 직접 표현하거나 행동에 옮기지 못한 것도 이러한 사회제도의 제약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이로 볼 때 비연전은 사회제도의 장벽으로 인해 좌절하면서도 내면으로는 남편에 대한 불만과 진실한 사랑을 갈구하는 욕망이 증폭되어 마침내 당시의 제도와 대립한 것이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제도상의 신분 차별은 밀회가 발각되어 무공업에 의해 맞아 죽은 후에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분을 이기지 못한 무공업이 비연을 채찍질해 목숨을 잃었지만 그는 어떠한 법적 제재도 받지 않고 있다. 당시 주인이 첩을 살해한 기록은 적

館殿者，咸可就詣。如不吝所費，則下車水陸備矣。其中諸妓，多能談吐，頗有知書言語者，自公卿以降，皆以表德呼之。其分別品流，衡尺人物，應對非次，良不可及。……比常聞蜀妓薛濤之才辯，必謂人過言，及睹北里二三子之徒，則薛濤遠有慚德矣。」(崔令欽《教坊記》에도 같은 내용이 있음)

16) 王書奴《中國娼妓史》(臺北，萬年青書店，1971)，152쪽.

17) 長孫無忌《唐律疏議·戶婚律》卷13：「諸以妻爲妾，以婢爲妻者，徒二年。以妾及客女爲妻，以婢爲妾者，徒一年半。各還正之。」

18) 《全唐詩》卷470 盧殷〈妾換馬詩〉，卷511 張祜〈愛妾換馬詩〉，明代《陳詩教花》活卷：「唐張籍性耽花卉，聞貴族家有山茶一株，花大如盞，度不可得，乃以愛姬柳葉換之，人謂張籍花淫。」

19) 李昉《太平廣記》卷275〈沈詢〉條.

지 않아 《태평광기》 130권 〈竇凝〉는 박릉 최씨녀와 혼인하기 위해, 〈嚴武〉는 軍使의 딸을 첩으로 삼았다가 관청 조사를 피하기 위해, 〈諸葛昂〉은 일시적인 호기로, 〈杜大中〉은 싫어하는 짓귀를 썼다는 다양한 이유로 첩에 대한 매질이나 학살이 빈번하게 자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당시 법률은 과실로 첩을 죽일 경우 죄가 되지 않았으며²⁰⁾ 고의로 살해하였을 경우 ‘二等’의 신분 삭감이 있었다.²¹⁾ 그러나 무공업이 설혹 비연을 살해할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매질에 조금도 사정을 두지 않아 사망한 것이 사실이고, 「항간에서 비연이 공업에게 피살되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而里巷間皆知其強死矣)」 누구도 그의 죄를 묻거나 따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비연을 위해 나서야 할 조상마저 가문의 명예나 간통죄가 두려워 숨고 있다. 이로 볼 때 비연전의 가장 큰 비극은 인권을 박탈당한 채 재물의 일부로 살며 죽임을 당해도 방치하는 당시의 신분제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3. 전통 예법

남녀간의 애정은 인류의 영원한 숙제로 본래 고대 중국에서는 남녀간의 만남이나 연애를 엄격하게 금지하지는 않았다.²²⁾ 그러나 부권제 확립 이래 혼인은 점차 性的 수요에 의한 만족보다는 조상의香火를 잇고 종족의 번성을 구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혈통의 순수성을 중시하는 종법제도는 ‘음행 방지’를 위해 혼전 남녀가 직접 만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²³⁾ 이 때문에 《禮記·禮運篇》에 「飲食男女, 人之大欲存焉」이라 전제하고 남녀관계에 「七年, 男女不同席」이나 「女子十年, 不出, 姆教」 등의 윤리적 제약을 마련하였다. 여성을 외부와 격리하고 생활공간도 집안으로 제한시킨 엄격한 남녀구분은 부부간을 제외하고는 공동 생활하는 가족 구성원조차 직접 물건도 주고받지 못하게 금지하였으며,²⁴⁾ 심

20) 長孫無忌《唐律疏議·鬪訟》卷23: 「夫過失殺傷妻媵妾, 各勿論。」

21) 상동 「毆妾, 非折傷無罪, 折傷以上, 減妻罪二等, ……若殺妾者, 止減凡人二等。」

22) 《周禮》: 「仲春之月, 會男女, 是月也, 奔者不禁。」 또 《詩經》: 「野有死麋, 白茅包之; 有女懷春, 吉士誘之. 〈二南·野有死麋〉. 靜女其妹, 俟我于城隅. 〈邶風·靜女〉. 期我乎桑中, 要我乎上宮, 送我乎淇之上矣. 〈鄘風·桑中〉 등.

23) 戴德《大戴禮·本命篇》: 「淫其亂族也。」

24) 《禮記·曲禮》: 「男女不雜坐, 不同櫬, 不同巾櫛, 不親授. 叔嫂不通問, 諸母不漱裳, 外言不入于梱, 內言不出于梱. 女子許嫁, 纓非有大故不入其門. 姑姊妹女子已嫁而

지어 형제를 마중하고 전송하는데도 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²⁵⁾ 아울러 이러한 남녀 격리는 여성의 일생을 남성에게 종속당하는 ‘三從’이나 ‘七出’과 같은 예교규범까지 마련하여 여성의 독립성과 자아의식의 결핍을 초래하고 나아가 지위와 정신까지 억압하는 족쇄가 되었다. 이러한 예교적 속박은 남존여비 관념을 더욱 각인시켜 여성들의 의식을 지배하도록 만들었다. 비연이 죽음에 임해서도 사통 상대를 실토하지 않은 것은 애정에 충실한 성격적 측면도 있지만, 그 애정이 조상이 ‘은혜’를 베풀어 성립된 것이라는 관념의 지배를 일부 받았음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그녀의 편지 속에 「하늘에 바라옵건대 저의 이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셔서 공자를 한번 만나 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 (猶望天從素懇, 神假微機, 一拜清光, 就殞無恨)」라 말하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예법이 강요한 남녀 지위의 차이로 인해 애정조차 은혜라 여겨 남성은 어떤 의무나 책임도 없으며 후회나 원망도 하지 않는 여성의 사유방식에 연유한 것으로 본편의 비극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여성 ‘貞節’은 한대 宣帝와 安帝가 물질로 부녀 정절을 장려한 이후²⁶⁾ 사회적 중시의 대상이 되어 조정과 세인의 보호와 격려 아래 부녀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가 되었다.²⁷⁾ 이 때문에 부녀자가 핍박이든 자원이든 일단 ‘失節’ 하면 자신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사회적 멸시와 버림을 받게 됨으로써 정절 보전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는 수많은 비극이 생산되었다.²⁸⁾ 여성 정절을 중시하는 이러한 사회현실은 소설의 소재로 활용되어 적지 않은 작품을 탄생시켰으며 〈비연전〉 역시 이러한 내용을 제재로 당시 부녀자의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제시하고 있다.

고대 예교윤리가 비록 부녀자의 육체와 정신을 구속하고 정절이 가치의 중심이

反, 兄弟弗與同席而坐, 弗與同器而食。」

25) 長孫無忌《唐律疏義·雜律》卷26: 「婦人從夫, 無自專之道, 雖見兄弟, 送迎尙不踰闕。」

26) 《漢書·宣帝紀》卷8: 「神爵四年詔中, 有‘賜……貞婦順女帛,」 및 《後漢書·孝安帝》: 「元初六年詔中, 亦有‘貞婦有節義十斛, 甄表門閭, 旌顯厥行。」

27) 《女論語·開宗明義·立身》第一章: 「女子……立身之法, 惟務清, 貞, 清則身潔, 貞則身榮。」

28) 兪炳甲《唐人小說所表現之倫理思想研究》제4장 제3절(臺灣, 政治大學 博士學位論文, 1993).

되었지만 당대는 전대에 비해 개방적인 사회풍조로 인해 여성정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법적 합의 이혼도 가능하였으며²⁹⁾ 《柳毅傳》의 龍女처럼 재가하는 것 역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 관념은 여전히 정절을 중시하여, 당시 고문귀족의 혼인은 '胡化'로 인해 정절 관념이 희박한 황실 공주보다 오히려 예교에 밝은 '五姓女' 같은 명문세족 여성을 선택하였다.³⁰⁾ 이 때문에 기녀신분에서 첩이 된 비연도 부정을 저지른 첫날 「제가 정조를 깨끗이 지킬 뜻이 없어 이같이 방탕하다고 여기지 말아주세요(勿謂妾無玉潔松貞之志, 放蕩如斯)」라 우려함으로써 정절을 중시하는 당시의 도덕관념을 반영하고 있다.

정절에 관한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소설 창작 역시 자유로울 수 없어 예교에 합치되지 않는 남녀의 불륜을 미화하거나 대단원의 결말 유도는 거의 불가능하였다.³¹⁾ 더욱이 유교윤리가 생활화된 사인 작가의 입장에서 애정류 소설이 비록 자신들의 억눌린 본능을 보상해주는 기제로 작용하지만, 사회적 명예와 사도상의 불이익을 감수할 정도의 가치는 지니고 있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은 이생이 편말에서 「아리따고 향기로운 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다면, 응당 누에서 투신한 석송의 綠珠를 대하기 부끄러웠겠지(豔魄香魂如有在, 還應羞見墜樓人)」라며 부정을 저지른 비연을 비판하는 내용에서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봉건사회가 남녀에 대한 법의 적용이 다르다 할 수는 없지만, 사통에 대해 주도적 입장이었던 남성에 비해 여성은 법적 형벌과 윤리적 부담까지 져야하는 매우 불리한 입장이었다. 당대 법률은 간통죄의 경우 혼인한 부녀자는 二年의 형기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³²⁾ 예교윤리는 오히려 지탄의 대상으로 몰아 법률보다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 더욱이 비연은 주인 명령에 복종해야하는 첩의 신분으로 사회 전체의 윤리 도덕과 대립하는 불공평한 형국이기에 부정에 대한 징벌은 치명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비연이 '徒二年'의 법률적 기준을 넘어

29) 長孫無忌 《唐律疏義·戶婚》卷14: 「若夫婦不相安諧, 謂彼此情不相得, 兩願離者, 不坐。」

30) 俞炳甲 〈唐代小說에 나타난 婚姻觀 研究〉: 《인문과학논집》 제18집, 청주대학, 1998.

31) 金洛喆 《唐 傳奇 愛情小說의 構造 研究》, 성균관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박사논문, 1997)에서 당대 애정류 소설이 비극으로 설정되어 있는 내재적 이유를 참조.

32) 長孫無忌 《唐律疏義·雜律》卷26: 「諸姦者, 徒一年半, 有夫者, 徒二年。」 「婦人從夫, ……背夫擅行, 有懷他志, 妻妾合 徒二年。」

사망에 이르렀지만 그다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녀의 비극은 사회 윤리가 생산한 필연적인 결과라 할 것이다. 다만 작가는 전통의 정절관념과 당시 법률상 비연의 不貞이 죄가 됨을 알지만, 그녀가 단순히 才子佳人式의 정을 통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신세와 처지를 이해하고 죽음이라는 징벌이 지나치다는 느낌을 전달함으로써 비극의 의미와 강도를 배가시키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4. 인물성격

소설은 주제와 줄거리와 인물의 복합체이지만 인물은 이야기를 이끌어 가기 위한 주체로서 소설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리고 인물 성공의 관건은 성격(character) 표출로 모호하거나 선명치 않은 인물은 이야기의 감염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 때문에 인물의 성격은 소설의 가치를 입증하는 좋은 재료이자 작품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단서로서 그 실천 수법과 성격에 따른 비극 요소를 통해 본편의 우수성을 살펴보려한다.

〈비연전〉은 인물에 대한 형상묘사가 거의 없는 편으로 조상에 대해서는 작가가 직접 「용모가 준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였으며 文才가 있었는데 당시 겨우 스무살이었다(端秀有文, 纔弱冠矣)」고 소개하고 이후 비연의 입을 통해 「재모를 겸비한」 사람이라는 표현뿐이다. 비연에 대한 묘사도 비교적 단순하여 조상이 비연을 보고 「넋과 기운을 다 잃고 식음을 폐하고 잠마저 이루지 못하는(神氣俱喪, 廢食忘寐)」 측면 묘사와 「절세 미모를 한번 본 후 내 마음 이렇게 갈피를 잡지 못한다(一觀傾城貌, 塵心只自猜)」는 식귀 등으로 그녀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고대소설의 일반적 현상으로 상당히 모호하고 개략적인 인상을 줌으로써 〈임씨전〉 등과 같이 다각적인 묘사로 독자의 주도적인 상상력을 유발시켜 인물을 형상화한 우수한 효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³³⁾

소설은 희극과 달리 문자를 매체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하고 인물 성격을 표출해야하기에 작가는 적절한 문자적 재료를 제공하여 작품의 주제를 표출하고 의도한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그러나 재료가 지나치게 자세하거나 모호하면 독자의 흥미나 관심이 떨어져 작품의 예술성과 성공여부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작

33) 俞炳甲 〈沈既濟의 任氏傳 研究〉: 《中國小說論叢》 2002년 15輯.

가는 동작의 주체인 인물의 성격을 돋보이려 다양한 형식을 사용한다.

본편은 인물의 형상묘사는 비록 평범하지만 성격묘사는 사건의 전개에 따라 점층적으로 발전하고 구체화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고대소설에서는 보기 드문 커다란 성취를 얻고 있다. 우선 비연은 조상이 품은 애모의 정을 알자 「그저 미소를 지으며 응시할 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但含笑凝睇而不答)」 모습으로 처음 나타난다. 이미 혼인한 여인이 외간 남자의 돌발적인 애정 고백을 듣고도 화를 내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단지 미소만 짓는 행동은 무척 모호하다. 하지만 모호함 속에 기쁘지만 내색하지 못하고 두려우면서도 명확한 의견을 표시하지 못하는 신중하고 복잡한 그녀의 심리상태가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앵앵전〉에서 보이는 앵앵의 심리상태와 비슷한 것으로 자유연애의 감정과 전통 예법과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처음 戀詩를 받은 비연은 한참동안 탄식하다 「나도 일찍이 조상을 몰래 훑쳐본 일이 있는데 정말 재모를 겸비한 분(我亦曾窺見趙郎, 大好才貌)이라고 그에 대한 평가를 토로한다. 이는 조상이 애정을 전달하기 이전부터 이미 그를 몰래 훑쳐보며 사모의 정을 품고 있었거나 혹은 상당한 심리적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는 중국 고전소설에서 보이는 정숙한 이미지의 여성이 풍류재사의 유혹에 비로소 마음이 동하여 '非禮'의 일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형식과 달리 비연의 적극성이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金鳳箋에 쓴 답시를 통해 「기득한 수심과 들뜬 마음」이 조상의 시 때문이란 것을 설명하고 재모를 구비한 사람과 짝을 이루고 싶은 갈망을³⁴⁾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부녀의 덕목을 강요하는 고대 사회에서 더욱이 남의 첩이 된 여성이 비단 외간 남자를 훑쳐보고 애모의 정을 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애정의 유혹에 관심을 표시하는 행동은 일반 부녀자로서는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그러나 비연은 여기서 신분과 처지를 고려하지만 억제할 수 없는 감정의 흐름으로 도덕적 갈등을 겪는 고층과 은밀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점차 예교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담성은 그녀만의 독특한 환경과 성격을 형성하며 윤리도덕과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향해 전진함으로써 비극의 생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연의 성격 발전은 며칠 후 비단 향낭과 함께 碧苔箋에 써 보낸 시 속에 재차

34) 「綠慘雙娥不自持, 只緣幽恨在新詩. 郎心應似琴心怨, 脉脉春情更擬誰。」

드러난다.

기운 내어 간신히 화장하고 조각한 난간에 기대 앉아,
 남몰래 향주머니에 시 적어 넣을 제, 무궁할 손 이 사념(思念)이여.
 요사이 걸러버린 봄 병 때문에,
 연약한 버들가지 보드라운 꽃잎처럼 새벽 바람이 두렵구나.
 (強力嚴妝倚綉櫺, 暗題蟬錦思難窮. 近來贏得傷春病, 柳弱花欹怯曉風.)

그녀는 자신의 傷春病이 신체가 아닌 애정에 의한 심리적인 병이란 것을 실도하여 주동적으로 애정을 표시한다. 그리고 「약간 불안해서(微有不安)」 답장이 늦었다고 해명하여 자신의 행동으로 야기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함으로써 심중에 모종의 결심을 세웠으며 향후 그 결심을 인해 지불해야 할 대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의식하고 있음 밝힌다.

인물 내면의 갈등은 성격 발전의 필연적 단계로 작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봉건 예법이 그녀에게 씌워 놓은 사술의 무게와 그녀의 애정행각이 내포한 심각한 위험성을 독자에게 인식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역사조건 아래 이들의 애정은 봉건 혼인제도를 향한 도전이며 봉건 예법의 결렬이기 때문에 장차 파생될 충돌의 여파가 상당하리란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비연은 「남자의 뜻과 여자의 정이 심령으로 맺어지니 먼 것도 가까이 보이는 구나(丈夫之志, 女子之情. 心契魂交, 視遠如近也.)」라며 대담하고 적극적인 애정 고백 단계로 진입한다.

저는 팔자가 사나워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청춘에 매파에게 속임을 당하여 마침내 이 웅졸한 사람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맑은 바람 일고 당 맑은 밤이면 언제나 거문고를 타는데 그럴 때면 슬픈 마음은 더욱더 불어납니다. 가을날의 휘장과 겨울밤의 등불 아래 거문고를 타면서 그 소리에 깊숙이 쌓인 한을 기탁하곤 합니다. 그런데 공자께서 저에게 홀연 이처럼 좋은 소식을 전해 줄 줄이야 어찌 알았겠습니까. 편지를 뜯어보고 저의 연정은 그곳으로 날아갔고 아름다운 시구를 읽고 나서 저의 시력이 그곳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다만 한스러운 것은 洛川의 파도가 가로막혀 있고, 賈午의 담장이 너무 높으며, 진나라 봉황대는 너무 높아 구름도 미치지 못하고, 楚岫는 너무 멀어 꿈에나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

늘에 바라옵건대 저의 이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셔서 공자를 한 번 만나 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다.(下妾不幸, 垂髻而孤, 中間爲媒妁所欺, 遂匹合于瑣類. 每至清風明月, 移玉柱以增懷. 秋帳冬釭, 泛金徽而寄恨. 豈謂公子, 忽貽好音. 發華緘而思飛飛, 諷麗句而目斷. 所恨洛川波隔, 賈午牆高. 連雲不及于秦台, 薦夢尙遙于楚岫. 獲望天從素懇, 神假微機, 一拜清光, 九殞無恨.)

비연은 여기서 재차 자신의 불행한 과거와 원만치 못한 혼인 생활을 토로하고 부끄러운 내면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자신을 총애하지만 포악하고 의기가 투합하지 않는 무도한 사람의 첩이 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외간 남자에게 고백하는 대담성이 드러난 것이다. 그리고 당장 그의 곁으로 가지 못하는 아쉬운 심정과 만나서 원앙의 꿈을 이루고 싶은 간절한 소망 등 애정에 대한 속마음을 진솔하게 고백한다. 비연의 편지는 독자에게 그녀의 비참한 경력과 조상을 사랑하게 된 계기를 명확히 이해시켜 동정심 유발과 함께 이후 전개될 '非禮'행위에 대한 정당성 내지 타당성을 부여함으로써 인물의 성격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공업이 당직하는 날 비연이 대담하게 사다리를 준 비해 조상으로 하여금 담장을 넘어와 그리던 정을 마음껏 나누는 비약적 발전을 해도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다. 한편, 예교 윤리의 도덕적 담장을 이미 넘어버린 비연은 자신의 애정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되어 私奔의 욕망을 밝힌다. 즉, 「소나무 위의 학이 되어 함께 구름 속으로 날아가고 싶은(願得化爲松上鶴, 一雙飛去入行雲)」 심경을 토로해 둘만의 세계를 향해 멀리 달아나 숨어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애정에 대한 그녀의 이러한 대담하고 적극적인 성격은 조상과의 밀회가 하녀의 밀고로 들통이 났을 때 독특한 형태로 나타나 그녀의 성격을 더욱 구체화 시키고 있다.

방으로 들어와 비연을 불러 다그치자 비연은 겁이 나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목소리는 떨렸지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공업은 더욱 화를 내며 큰 기둥에 묶고 피가 흐르도록 혹독하게 채찍질 하자 비연은 다만 '살아서 서로 사랑했으니 이제 죽은들 무슨 여한이 있으리오'라고 말할 뿐이었다. 밤이 깊어 공업이 지쳐 잠깐 잠이 들자 비연은 평소 아끼던 하녀를 불러 '나 물 한 잔만 다오'라 하여 물을 떠오니 다 미시고는 그만 숨을 거두었다.(乃入室, 呼飛烟詰之. 飛烟色動聲

聲戰，而不以實告。公業愈怒，縛之大柱，鞭楚血流。但云：“生得相親，死亦何恨。”深夜，公業怠而假寐，飛烟呼其所愛女僕曰：“與我一杯水。”水至，飲盡而絕.)

거칠고 사나운 무공업이 밀회 현장을 목격하고 비연을 다그치자 겁이나 새파랗게 질리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사실대로 고하지 않고 기둥에 묶여 혹독한 채찍질을 당하지만 끝내 굴하지 않는다. 여기서 비연은 이미 첩의 본분을 초월해 자신이 결정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려는 애정의 자주권을 획득한 강인한 성격의 소유자로 선명하게 부각되고 있다. 더욱이 「살아서 서로 사랑했으니 이제 죽은들 무슨 여한이 있으리오」라며 자신이 선택한 애정의 가치가 생명보다 소중함을 망설임 없이 표명하고 있다. 이것은 비연이 이미 자신의 不貞 행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 대가가 설혹 죽음일지라도 애정을 위해 목숨도 기꺼이 버리겠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녀는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현실과 타협하거나 非禮의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기존의 예법과 제도를 향해 과감히 생명을 담보로 대항한 것이다. 여기서 그녀의 모습은 연약한 여성이라기보다 비극의 절정을 향해가는 투사이자 구차한 삶보다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강직한 선비의 모습이다. 이러한 성격적 특징으로 인해 劉筠은 「비연의 면전에 서면 사람들은 단지 진심으로 감탄하고 흠모하는 것이지 그녀에 대한 연민이 생겨나는 것은 절대 아닐 것이다」라 하여³⁵⁾ 그녀의 비극에 대해 동정보다는 존경을 표하고 있다.

더욱이 비연은 사후에도 꿈을 빌려 자신의 행동을 비난한 이생에게 샷대질하며 꾸짖고 심지어 지하에서 대면하자며 분노를 표시한다. 도덕관념의 대변자라 할 수 있는 이생을 끝내 죽게 만든 비연의 비현실적 저주는 평정과 조화를 추구하는 中華美의³⁶⁾ 발현으로 본다면 극단적 비극을 견제하는 중국적 서사 장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낱 재물에 불과한 첩의 몸으로 이생에 대한 오만에 가까운 그녀의 행동은 전통 예법뿐 아니라 신분제도에 대한 불복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통의

35) 劉筠 〈理會個別，描寫個別—談皇甫枚飛烟傳中步飛烟的形象描寫〉，「站在步飛烟面前，人們只能由衷地贊佩，產生的絕不該是對她的憐憫。」(中國，安陽工學院學報，2008)，第3期。

36) 宋眞榮 《紅樓夢의 悲劇性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중문과 석사논문, 1992. 22-27쪽 참조.

가치관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작가는 인물의 필연성과 연관성에 근거해 자신이 선택한 애정에 대해 적극적이고 충실하며 고집스러우면서도 도발적인 비연의 선명한 개성을 형상화함으로써 당시 사회에 충격과 혼란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비극을 통한 양심의 가책(tragic qualm)³⁷⁾ 형성하여 예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작품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인물 성격이 비극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조상이나 공업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사건의 발단은 조상이 喪中임에도 불구하고 비연의 미색에 동해 편지를 전한 것으로 그가 충동을 억제하였다면 사통사건은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그의 성격 또한 비극의 확대작용을 하고 있다. 비록 작품 곳곳에 비연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지만³⁸⁾ 이후의 여러 행동에 미루어 진정성이나 책임감이 부족하여 비극을 확대시키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즉, 첫 만남에서 시를 통해 비연이 私奔의 기대를 표명하나 이를 묵살하였고, 밀회가 들통 난 후 남겨진 비연이 직면할 처지를 외면한 채 도망쳐 비극을 방조하였으며, 비연의 죽음이 알려지자 변복과 개명을 하고 멀리 江浙지역으로 피신한다. 맹세를 잊고 자신의 안전과 가문의 명예만을 고려한 그의 행동들은 그의 애정이 단지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한 지배계층의 무책임한 일시적 놀이란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는 은연중 전통의 도덕관념과 정면으로 맞서 당당히 자신의 애정에 충실하고 책임지는 하층민의 의지와 자신의 살길만 찾는 나약한 사인들의 모습이 대비되어 당시 사회에 심각한 도덕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무공업 역시 비록 비연을 총애하였지만 진정한 사랑이나 관심을 쏟지 않았기에 그녀가 원하는 생활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녀가 非禮의 길로 들어서는 요인을 제공한다. 거칠고 포악한 그는 비연의 부정을 알고 혹독한 매질로 끝내 죽음에 이르게 만든 비극 조성의 장본인이다. 그는 비연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귀여운 장난감이나 부속품으로 여겼기에 추호의 연민도 느끼지 않고 이미 죽은 비연을 재차 매질하려 한다. 그리고 비연의 죽음을 발견한 그는 「시체를 방안으로 옮긴 다음 연거푸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비연이 급환으로 죽었다고 말해(擧置閣中, 連呼之, 聲音

37) H. Feyer, 《Romance and Tragedy》(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1961), 97쪽.

38) 「發狂心蕩, 不知所持」 「挹希世之貌, 見有人之心. 已誓幽庸, 永奉歡洽。」

飛烟暴疾致殞)」 어떤 후회나 슬픔도 없이 단지 책임 회피에 급급한 간교하고 비겁한 모습이 드러난다. 이러한 그의 성격은 비극 조성의 원인으로 작용을 할 뿐 아니라 인권의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는 교훈을 주고 있다할 것이다.

대부분의 비극이 인류와 불가피한 자연율과의 충돌로 시작되며 그 결과가 언제나 자연율의 승리와 인물의 좌절형태로 나타난다면 비연의 비극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비굴하게 타협이나 구걸, 책임 전가를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감정의 자유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고, 심지어 사후에도 여전히 이를 위해 분투하는 강인한 정신의 소유자로 그녀의 이러한 성격이 비극 조성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거대한 힘에 대항해 굴복하지 않는 고집스런 그녀의 성격은 당대 다른 소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강렬한 비장미를 조성하여 인류가 지닌 고귀한 품격을 더욱 제고하는 효과를 얻음으로써 작품의 예술적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다할 것이다.

IV. 結語

皇甫枚의 소설집 《三水小牘》에 수록된 〈飛烟傳〉은 武公業의 애첩 步飛烟이 자유연애를 추구하여 이웃집 서생과 사통함으로써 발생한 비극을 묘사한 작품이다. 본고는 이 작품에 나타난 서사특징을 살펴 주제와 묘사수법의 특징 및 우수성을 알아보고, 비극의 요인을 분석해 그 의미와 독창성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그 결과 〈비연전〉의 서사 특징은 간략한 직접소개로 독특한 환경을 조성하여 독자의 흥미와 상상력을 유도하였으며, 시가라는 시대적 특징을 활용해 인물의 다양한 심리활동 및 사건 발전의 연결 효과까지 얻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울러 편말의 비현실적 묘사를 통해 표면상의 주제와 내면의 객관적인 주제를 모두 부각시켜 당시 세태를 풍자하고, 나아가 '不貞'을 이해하고 동정함으로써 남녀애정에 대해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찾아내었다.

비극 요인의 분석 결과는 우선 인물의 불행한 과거 경력이 숙명론의 역작용을 유발하여 오히려 현실에 대한 도전 가능성을 축성하였으며, 혼인제도에 의한 희생 경

력이 婚姻自主의 욕망을 야기하여 전통 가치관과 충돌함으로써 비극의 요인이 되었음을 알아내었다. 또한 기록을 근거로 중심인물의 출신성분을 유추해 당시의 사회적 지위를 확인함으로써 이들이 겪는 신분상의 고충과 심리적 갈등이 비극 형성 요인이 되고 있음을 유추해 내었다.

전통의 남존여비 사상과 정절 중시의 윤리관념 역시 비극 확대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는데, 특히 不貞에 대한 징벌은 당시 법률 규정보다 엄격한 예교적 윤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비극이 필연적으로 생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비연전〉 비극의 결정적 요인은 사회 제도나 윤리규범을 초월해 혼인의 자주권을 행사하고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애정에 충실한 인물 성격이 전통의 가치관과 충돌함으로써 더 큰 비극이 형성하였음을 증명하였다. 특히 애정 쟁취를 위해 제도와 예법에 정면으로 도전한 특정 인물의 비극을 통해 전통 가치관에 문제점을 제시하여 충격과 혼란을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작품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같이 〈비연전〉은 자신의 애정에 대해 생명을 도외시하고 사후에까지 집착한 인물의 선명한 형상을 통해 당시 부녀자들의 비천한 사회적 지위와 이로 야기된 혼인 제도의 불합리성을 고발하는 전형성과 시대성을 구비하여 당대소설의 이해와 감상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사건 발전의 흐름에 따라 적극적이며 대담하고 용감하며 고집스런 인물 성격을 성공적으로 구현함으로써 주제를 명확히 부각시켰을 뿐 아니라, 비극 충격의 가책을 최대화하여 예술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중국문학 사상 당대소설의 위치를 확립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參考文獻】

- 長孫無忌《唐律疏議》，臺北，弘文館出版社，1986。
 孫 槩《北里志》，臺北，世界書局，1975。
 汪國垣《唐人傳奇小說》，臺北，世界書局，1983。
 魯 迅《中國小說史略》，北京，人民文學出版社，1987。
 劉開榮《唐代小說研究》，香港，商務印書館，1964。
 劉 瑛《唐代傳奇研究》，臺北，正中書局，1982。
 李宗爲《唐人傳奇》，北京，中華書局，1985。

- 陳東原《中國婦女生活史》，臺北，商務印書館，1986。
李劍國《唐五代志怪傳奇敘錄》，天津，南開大學，1993。
吳志達《中國文言小說史》，山東，齊魯書社，1994。
劉燕萍《愛情與夢幻》，香港，商務印書館，1996。
程國賦《唐代小說嬗變研究》，廣東，人民出版社，1997。
崔眞娥《환상, 욕망, 이데올로기》，서울，문학과 지성사，2008。

【中文提要】

〈飛烟傳〉是晚唐皇甫枚小說集《三水小牘》中的一篇，故事描寫了武公業的愛妾步飛烟，因追求婚姻自主與隣居書生趙象相愛而產生的愛情悲劇。本稿論文分析研究了〈飛烟傳〉所用的敘事方法，確認其描寫手法、主題表現方法及文章結構嚴密的優秀特徵，透徹分析了作品中所涵蓋的悲劇因素，闡明其悲劇意義和價值，進而確立唐代小說在中國小說史上的地位。

首先，本篇選擇簡單的直接敘事方式以造成獨特的作品環境，引發讀者興趣并激發了想像力。并用詩歌的時代特徵傳達人物內面的心理活動，達到情節發展的連結作用的效果。特別是通過篇末的非現實描寫展露出表面的主觀主題和藏在離面的客觀主題，不但諷刺當時世態，且向當時社會提示了男女愛情觀念的根源問題。

造成悲劇產生有諸多的因素，人物的過去不幸的經歷是誘發宿命論的逆作用，促成了向不滿現實狀況挑戰；在不合理的封建婚姻制度下，對婚姻自主的嚮往和欲望勢必造成與傳統價值的互相衝突，是悲劇產生的潛在原因；還有以典籍史料為據，確認了中心人物的下層身份，在社會上沒有獨立人格和地位，因而在身分制度帶來的心理上的苦衷和葛藤，是悲劇形成的重要要素。

在封建禮法社會盛行的男尊女卑思想和重視女性貞節的道德倫理，亦是悲劇形成的主要因素。因傳統倫理對女性不貞的懲罰比法律更嚴重，是悲劇擴大的重要作用。本篇悲劇的最主要決定因素為人物本身的性格。她是屬於主人的財產的下層地位，但敢于實踐自主婚姻，為自己所選的愛情至死不悔。這種至死不渝以身殉情的堅執不屈的人物性格，必然與傳統觀念衝突，終於導致犧牲

生命的愛情悲劇。

〈飛烟傳〉在當時的歷史環境里借助于特定人物的遭遇，即反映封建社會婦女所處的低微地位的身分制度，也揭露了因追求自主愛情所受的迫害及不合理的婚姻制度。對當時的社會制度和價值觀念給予一定的衝擊。賦與當時社會對此種問題再次思考的契機。

【主題語】

悲劇, 性格, 禮法, 身分, 貞節, 描寫

tragedy, character, rite and law, statue, chaste, description

투고일: 2014. 1. 6 / 심사일: 2014. 1. 20~2. 5 / 게재확정일: 2014. 2. 10
--

